

# 청혼



뜨거운 태양, 막힌 가슴을 뺨 뚫어버리는 푸른 파도, 발가락 사이로 찌릿찌릿 느껴지는 보드라운 모래, 활기가 넘치다 못해 반쯤 미쳐버린 뜨거운 청춘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뚝뚝씨의 그녀, 미모!  
여름 바다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파리잡이 끈끈이만큼이나 집요하게 들이대는 오수다만 없었다면 말이다!

“어머 뚝뚝씨. 뚝뚝씨는 진짜루 바다의 남자당. 군살 하나 없는, 아니 아니 아예 살이 없는 그 완벽한 뺨다구 몸매는 정말이지 매력 만빵이거덩요. 해변을 다 뒤집어도 뚝뚝씨같은 완벽한 뺨다구는 한 명도 없다니깡!”



직업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이 : 1972년생  
신장 : 182cm, 체중 : 65kg  
외모 : 매우 스마트해 보이나, 어딘가 모르게 어설픈.  
성격 : 무척 수줍음을 많이 타나 이상형의 여성을 보면 집념의 사나이로 변신  
특기 : 주체할 수 없는 박학다식  
슬로건 : 총각탈출

욕인지 칭찬인지 도무지 분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따발총보다 빠른 속도로 내뿜는 오수다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진 뚝뚝씨와 미모양. 바다에 도착한 지 단 두시간만에 거의 혼수상태다. 눈치도 없이 따라오겠다고 부득부득 우길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 했더니만, 오수다 이젠 대놓고 뚝뚝씨에게 뜨거운 애정공세를 퍼 붙는다. 뚝뚝씨에 대한, 이성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칭찬을 퍼붓거나, 미모양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뚝뚝씨의 손을 살짝 잡는 것은 물론이요, 이날따라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빈혈은 왜 그렇게 심한지 10분 간격으로 비틀거리며 뚝뚝씨 어깨에 머리를 들이대는 게 아닌가! 아닌 척 도도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수다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는 미모. 뚝뚝씨 역시 오수다에 대한 예의와 미모에 대한 애정 사이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갈등 중이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급기야 결정적인 오버를 범하고 마는 오수다. “어쩔 바닷물이 이토록 차단 말이니! 뚝뚝씨 냉철한 두뇌 같애” 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을 늘어놓으며 뚝뚝씨의 품에 살짜쿵 머리를 묻는 게 아닌가!!

인내의 한계를 실감한 미모. 정신없이 독설을 퍼붓는다.

“오수다, 너 진짜 몸 망가졌다. 몸매만 비호감인 줄 알았더니 건강까지 80대니, 시집가긴 당체 글렀다. 어떡하니 쫓쯔... 그러니 할 수 없지. 친구 애인한테나 들이대는 니 심정 모르는 건 아닌데, 너무 추하다는 생각은 안드니?”

“뭘...? 뭐라구?”

“미모! 말이 너무 심하잖아. 친구한테”

“지금 누구 편을 들어요? 뚝뚝씨도 저런 애한테 마음이 있었던 말이에요? 정말 실망이야.”



분을 식이지 못한 미모, 해변을 벗어나 상가 앞 차도 한 복판을 가로 지른다. 그때, 고속으로 질주하던 승용차 한 대. 어찌 손 쓸 틈도 없이, 미모를 덮쳐버리고 만다. '끼!'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와 동시에 차도에 도착한 똑똑씨. 그러나 이미 미모양의 한쪽 다리는 자동차 바퀴 밑에 깔려 버린 뒤다. 상황을 알아채자마자 갑자기 혈크로 변신한 똑똑씨, 지독히도 깡마른 그 몸 어디에 그런 괴력이 숨어 있던 것인지 차를 번쩍 들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러나 사람들이 미모양을 차 밑에서 빼내는 것을 확인한 똑똑씨. 3초 이내에 다시 허약맨으로 돌아가 그대로 기절해 버리고 만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똑똑씨와 미모양, 병원측의 배려로 한 병실에 놓게 됐다. 둘 다 몸은 엉망이 됐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선 애정이 홍수처럼 넘쳐난다. "미모, 많이 아프지?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모 맘도 몰라주고."



"똑똑씨는 정말... 생명의 은인이예요. 제가 더 미안해요."

이때 병실에 들어 온 의사, 똑똑씨의 팔 다리를 사정없이 툭툭 친다. 동시에 들려오는 지축을 찌렁찌렁 울리는 비명소리.

"알아요, 알아요. 겁나게 아플겁니다. 근육이 그렇게 많이 파열되고도 수술까지 인간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한 달 정도 입원해야 되구요, 한동안 팔이랑 어깨는 못 움직이실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깡마른 분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답니까?"

"사람 근육의 힘은 생각보다 엄청나거든요. 실제로 성인남성이 넓적다리 근육을 모두 쓰면 1톤의 힘을 낼 수가 있죠. 하지만 과다하게 힘을 쓰면 근육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뇌는 절대로 10% 이상의 근육을 사용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죠. 그러니까 평소 생활 속에서 우리는 최대한 낼 수 있는 힘의 채 10%도 쓰지 않고 사는 셈이예요. 그치만 위급한 순간이 되면 뇌의 명령 없이 본능적으로 100% 가까운 근력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육이 다 파열되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똑똑씨의 말을 들으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의사. "근육에서 피가 질질 나는 양반이, 어쩔 그렇게 똑똑한 정신으로 말을 잘 합니까. 진짜 대단한 과학자시네." 의사의 칭찬에 흐뭇해진 미모. 거들고 나선다.

"우리 똑똑씨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도 똑똑씨죠." "참, 완벽한 찰떡궁합이구만요. 아가씨도 김스 풀려면 한 달은 걸리니까 조심하세요. 아니 근데, 근육이 파열 될 걸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평생 어깨를 못 쓰면 어찌려고 그런 무모한 짓을 했어요?" "그땐 인공근육을 쓰면 되죠 머.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인공근육 장치도 개발됐어요. 아주 적은 에너지로 인간보다 100배나 강한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이참에 600백만불의 사나이가 돼 볼까, 그런 거죠."

"진짜 대단하십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의사,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밖으로 나가고. 병실에 단 둘이 남게 된 똑똑씨와 미모양 사이엔 달콤한 사랑의 기운이 흐른다. 진통제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와중에도 뚫어져라 서로의 눈만 쳐다 보고 있는 두 사람.

"미모, 이제 그만 좀 자. 나 땀에 오늘 너무 힘들었잖아."

"똑똑씨, 영원히 잠을 안자도 되는 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똑똑씨 눈동자에 내 얼굴이 비치는 걸 보는 게 너무 좋아."

"미모... 실은, 나 미모에게 할 말이 하나 있어."

"뭐요?"

"미모가 나보다 오래 살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내 망막이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미모였으면 좋겠어. 다음에 어떤 세상에 가 있더라도 미모 얼굴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미모양, 말을 잊지 못하고 감동의 눈물만 똑똑 흘린다.

"미모, 나와 결혼해 줘."

"똑똑씨..."

이렇게 똑똑씨와 미모양의 사랑은 결실을 맺어 갔다. 



<똑똑씨의 박학다식은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